



제29대 원우회장 출마의 변

존경하는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29대 원우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평생교육&HRD 전공 박 은영입니다.
코로나 19로 인해 원우님들을 뵙지도 못하고 이렇게 서면으로
인사드리게 되어 많이 안타깝고, 송구합니다.



언제쯤일지 모르는 코로나 19의 위험 속에서 처음 입학할 때
원우님들의 학업에의 의지마저 꺾이지는 않을까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.
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동기간에도 만나지 못하고, 열정적으로 강의 해 주시는 교수님을
직접 뵙지도 못하는 현실 속에서 원우님들은 이제 만나면 서먹서먹하기까지 하다고 합
니다. 원우님들의 이러한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결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29대
원우회 회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.

동문 선배님들과의 소통과 원우님들 간의 소통,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 강화에 힘을 쏟고
싶습니다.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고 하여도, 우리의 이 뜨거운 열정을 꺾
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. 직접 수업을 받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수업일 지라도,
비록 열정 가득한 교수님들의 강의를 직접 듣지 못한다 하여도, 원우회는 결코 굴하지
않고 여러분들의 대학원 생활을 지켜드리겠습니다.

동문 선배님들을 모시고 소통의 장도 만들고, 각 과의 유능하신 교수님들을 초빙하여
배움에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유익한 시간도 만들어 보겠습니다.
비록 이 모든 것이 또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여야 한다 하더라도,
원우회가 열심히, 그리고 알차게 준비하여 원우님들께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.

‘이가 없으면, 잇몸으로 산다’는 말이 있습니다. 비록 코로나 19로
현실이 힘들게 할 지라도,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우회는 원우님들을 위해
자랑스러운 동문 선배님들과 교수님, 그리고 원우님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
교육대학원의 위상에 맞는 품격있는 학교 생활을 위해 뒷받침 해 드리겠습니다.
원우님들과 함께 고민하고, 의논하며 힘든 상황 이겨 내 보겠습니다.
이에 원우님들의 큰 응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제29대 원우회장 후보 박 은영 배상